

## [P2-12]

## 대구·경북지역 대장직장암환자의 영양섭취상태

서수원<sup>1</sup>, 구보경<sup>1</sup>, 전수한<sup>2</sup>, 이해성<sup>1</sup>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sup>1</sup>,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외과학교실<sup>2</sup>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대장직장암 환자의 영양섭취 실태를 분석 평가하여 지역민의 대장직장암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관련 기초 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대장직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수술 전후 환자 123명을 환자군 대상으로 하였고 위장질환이 없는 정형외과 환자 등 182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영양섭취 실태 조사는 반정량적 식품섭취 빈도조사지를 이용하여 개인 면담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1일 열량 섭취량(RDA%)은 대조군과 환자군이 각각 1853.3±291.9kcal(87.6%), 1947.4±389.7kcal (92.0%)였으며 환자군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단백질의 경우 대조군은 69.8±17.2g(111.5%), 환자군은 72.2±24.0g(116.0%)을 지방 섭취량은 대조군과 환자군 각각 34.8±11.2g, 39.0±18.7g으로 환자군의 지방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이섬유의 경우 대조군에서 18.8±4.8g, 환자군에서 16.7±5.6g을 섭취하여 환자군의 식이섬유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칼슘은 대조군과 환자군이 각각 540.6±182.6mg(77.2%)과 538.0±260.5mg(76.9%), 인은 1014.0±254.7mg(144.9%)과 993.7±350.0mg(142.0%)을 섭취하였으며 철분은 각각 12.9±2.7mg(105.9%)과 13.2±4.3mg(108.9%)을 섭취하여 권장량보다 높은 양을 섭취했고 아연은 각각 9.1±1.6mg(83.1%)과 9.4±2.4mg(84.2%)을 섭취하여 권장량에 미달하였다. 비타민 A의 섭취량은 대조군, 환자군 각각 756.7±330.0R.E(108.1%)와 725.5±326.5R.E(103.6%), 비타민B<sub>1</sub>은 1.05±0.23mg(97.5%)과 1.07±0.34mg(100.0%), 비타민B<sub>2</sub>의 경우는 1.00±0.29mg(77.8%)과 1.02±0.42mg (80.5%)을 섭취하였으며, 나이아신은 각각 15.32±3.73mg(115.7%)과 15.44±5.04mg(116.5%)을, 비타민C는 각각 106.98±37.86mg(152.8%)과 107.72±58.51mg(153.9%)을 섭취하여 비타민B<sub>2</sub>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타민 섭취가 권장량보다 높았다. 총지방산은 대조군과 환자군이 각각 13.1±4.9g과 15.7±9.2g을 섭취하여 환자군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의 열량 구성 비율은 대조군이 15.6 : 17.4 : 67.0이었고 환자군은 15.3 : 18.2 : 66.5로 나타났다. 동·식물성 급원별 영양소 섭취량에서 대조군은 식물성 급원으로부터 단백질 56.3%, 지방 50.0%, 칼슘 58.0%, 철분 77.5%를 섭취하였으며, 환자군은 식물성 급원으로부터 단백질 55.5%, 지방48.5%, 칼슘 59.4%, 철분 75.8%를 섭취하여 환자군이 식물성 급원으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의 비율이 모두 대조군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이나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장직장암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지방 섭취량과 지방 열량 섭취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주요영양소들의 동물성 급원 섭취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향후 지역적 식생활 특성을 고려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대장직장암 발생의 영양소 관련 위험인자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